

주제: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이해와 평가

강사:이정현 교수

1. 들어가는 말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신앙적 뿌리를 이룬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 ‘장로회정치’ 그리고 ‘예배모범’이다. 이들 중 앞의 두 가지는 다른 것 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으며, 이것들을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자료로 여겼다. 이들은 동일하게 신자가 무엇을 믿느냐를 규정하며 신구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기 쉽게 요약해 놓은 신조요, 문답서다. 주제별 조직신학적 체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배모범’은 위의 두 가지 문서보다 먼저 총회에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은 신학교의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교육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여기에 관한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더 명확하고 폭 넓은 이해를 돕고 있으나 예배모범은 그렇지 못하다. 아직 신학교에서 예배모범을 교과목으로 기획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는. 자료 또한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리고 목사, 장로, 집사의 임직에서 동일하게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 정치 그리고 예배모범을 믿고 수용한다고 고백하지만 강도사 인허식과 권사 취임시에는 예배모범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었음을 볼 때(헌법참고)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있다. 이뿐 아니라 교회의 청소년들이나 가정의 아이들에게 예배모범이 설명되거나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한마디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며 심도있게 교육되지도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한국교회의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관심하여 그 실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로교회의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영향하에 구성,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배경, 구조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른 예배경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가운데 형성된 개혁신교회의 전통, 정통적 예배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그 전통의 흐름 위에서 한국 장로교회의 상황에 맞는 예배모델을 추구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17세기에 형성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위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에 주의할 때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장의 일차적인 목적은, 당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역사와 교회사에 큰 영향을 주었던(Hetherington 1841:16-17) 웨스트민스터 성 총회의 역사적 배경과 회의 결과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장로교 예배의 경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자료인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로 인하여 예배모범의 역사적 가치와 한국 장로교회의 예전적 근간을 알게 될 것이다.

진행과정으로는 서론에 이어,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을 2항에서 다루었고 3항에서는 한국교회의 예배에 미친 영향과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내려본다.

2.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역사적 배경과 그 내용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공식 명칭은 ‘A Directory for the Publique Worship of God throught the Three Kingdoms of England, Scotland and Ireland’ 이나 이것을 흔히 약어로 ‘Westminter Directory’, ‘Parliamentary Directory’ 그리고 ‘Directory for Worship’ 이라 부른다. 여기의 ‘Directory’는 규칙, 안내, 지침이라는 뜻이나 본 항에서는 예배모범이라 통일시킨다. 긴 이름을 가진 이 예배모범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원래 역사가 복잡하듯 이 규칙서의 조성과정도 그렇다.

1) 역사적 배경

(1) 스코틀랜드의 낙스

1534년 헨리 8세(Henry VIII, 1509-1547)가 ‘영국교회의 수장령’을 선포함으로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그의 태도는 본인이 교황의 자리를 대신한 것 외에는 로마 가톨릭의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종교개혁의 영향이 영국에서 최고조에 이른 것은 개신교 옹호자였던 에드워드 6세(Edward VI, 1537-1553)의 통치 기간이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중요한 예식서가 ‘공동기도서’ (the Book of Common Prayer)이다. 이 기도서는 1549년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의 지휘하에 작성 되었으나 영국교회는 개혁된 내용이 약하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552년에 1549년 판을 더 과감히 개혁하여 ‘제 2 공동기도서’를 만들었다. 데이비스(Horton Davies)는 이 개정서가 나오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한다. ‘첫째는, 크랜머의 급진적 성찬교리에 관해 가디너(Gardiner)가 해명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부처(M. Bucer), 라스코(J. Lasco), 폴라인(V. Pullain)이 크랜머에게 개혁된 공식 예식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며 마지막은, 리들리(Jasper Ridley)와 후퍼(John Hooper) 같은 사람들이 전 기도서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제 2 공동기도서의 내용은 제 1 공동기도서와 판이하게 달랐다. 예배의 순서가 바뀌었고, 축사의식, 주유의식, 까운착용, 견신례와 환자방문 그리고 축성시 기름사용, 장례식 때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이 모두 삭제 되었다. 미사가 ‘집례를 위한 순서’ (Order for Administration)로 바뀌었고, 제단이 ‘성찬대’로 대체되었으며, 봉헌이라는 용어와 성찬용 제의도 사라졌다.

개혁된 공동기도서는 가톨릭의 고정되고 비성경적인 예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그들의 예배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낙스가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교회이다. 그러나 비록 낙스가 공식적으로 이 기도서를 인정하고 수용하기는 했으나 아직까지 불만은 많았다. 탐슨은, 낙스를 비롯한 당시 개혁자들이 이 기도서에 불만을 가진 이유에 대해 말한다. “첫째로 공동기도서는 목사들을 파면시켰으며 성도들을 성찬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둘째는 공동기도서 자체가 우상화 되었으며 그로인해 설교의 가치가 떨어졌다. 셋째는 미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제들을 게으르게 했고 부패하게 했다. 넷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교회에 가지고 왔다” (Thompson 1961:350).

낙스의 개혁운동은 메리 튜더(Mary Tudor, 1516-1558)에 의하여 잠시 소강상태가 된다. 부왕의 교회 수장령을 파기하면서까지 교황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메리 여왕의 등장으로 낙스는 제네바로 다시 망명을 가게 된다. 그러나 1558년 피의 여왕(Bloody Queen) 메리가 죽자 낙스는 그동안 프랑크푸르트에서의 목회경험, 부처와 칼빈에게서 배운 예배신학

과 개혁사상을 가지고 이듬해 에딘버러에 위치한 성 자일(St. Giles)교회로 돌아온다. 그가 귀국할 때, 스코틀랜드 교회의 예배와 신조, 그리고 교회정치를 개혁하기 위하여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신앙고백(Confession of Faith)과 훈련서(Book of Discipline), 그리고 기도서(Forme of Prayers)이다(정장복 1999:166). 이 가운데 마지막 책은 칼빈의 제네바 예배서(이것을 흔히 ‘칼빈의 예배서’라 부르며 이것을 1550년에는 윌리엄 휘케에 의해, 1556년에는 낙스에 의해 영어로 번역 되었다. Thompson 1961:288)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자신의 망명시절 프랑크푸르트와 제네바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 예배서가 스코틀랜드교회 예배개혁의 초석이 된다. 이 예배서는 1564년 스코틀랜드교회 총회에서 “목사로 안수를 받은 자는 에딘버러에서 최근에 출판된 예배서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 예전, 기도, 결혼, 성례전을 집행해야 한다” (G. W. Sprott, The Book of Common Order of the Church of Scotland commonly known as John Knox’ s liturgy, Edinburgh:William Blackwood and Sons, 1901:xv)는 결의를 내리므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공인된 이 예배모범을 ‘공동 예배모범’ (Book of Common Order) 또는 ‘낙스 예배서’ (Knox’s Liturgy)라 불렀고 이것은 1645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신 예배모범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스코틀랜드교회 예배의 중요한 지침서가 되었다.

한편 제 2 공동기도서는 엘리자베드 여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구교와 신교의 화해정책의 일환으로 1559년에 제 3 공동기도서로 새롭게 편찬 된다. 이 기도서의 내용은 1552년 판과 다를 것이 없으나 여왕의 강력한 사용 명령에 의해 1661년까지 거의 변화되지 않고 영국교회에서 사용되었으며, 그 후 영국교회는 공동기도서에 대한 공식적인 개정을 1662년 한 번 더 한 후 20세기까지 큰 변화없이 사용하고 있다(Maxwell 1936:150-154).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출현하기까지 스코틀랜드교회가 예배모범의 내용을 고수하며 지키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공적 인정은 받았으나 왕의 허락은 없었으므로 후에 제임스(1566-1625) 왕과 그의 아들 찰스 1세(1600-1649)에 의해 많은 위협을 받는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통합 왕이었던 제임스 1세(사실 그는 헨리 8세의 누이의 아들로 제임스 6세였으나 엘리자베드 1세가 계승자가 없이 죽자, 왕의 혈통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 와서 제임스 1세로 양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영국교회의 예배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예배를 영국화 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왕위를 이어 받은 찰스 1세는 부왕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부왕보다 더욱 강하게 예배의 영국화를 시도했다. 그는 1618년에 스포티스우드(Spot-tiswood)를 펄스(Perth)에서 열리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에 보내어 5개 신조(Five Articles of Perth -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을 것, 성일을 엄수할 것, 감독교회식의 견신례를 집행할 것, 개인적으로 세례 베푸는 것과, 개인적으로 성찬을 베푸는 것을 인정함(오덕교 1997:145)를 채택하도록 강요했고 1636년에는 스코틀랜드교회에서 낙스의 예배서를 사용하지 말 것과 영국교회의 기도서를 사용하고 비예전적 기도 사용과 장로제도의 시행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이 칙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모두 출교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캔터베리의 대 주교인 윌리엄 로드(William Laud)를 통해 양국교회의 예배서와 기도서를 합본, 1637년에 발간한 예배서(Laud’ s Liturgy or Scottish Book of Common Prayer)를 스코틀랜드 교회에 사용토록 하였다(M’Crie 1892:154-156). 이것은 영국내에서는 청교도를 박멸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의 예배를 가톨릭화 또는 성공회화 시키려는 의도였다.

개혁교회는 종교의 자유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일념으로 무장봉기하여 이들과 맞서 싸웠다. 찰스 왕은 무력으로 이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스코틀랜

드 교회의 요구대로 1638년에 글래스고(Glasgow)에서 총회를 허락하게 되었다. 이 총회에서 교회의 수장으로서의 왕의 권위를 폐지시키는 것과 감독제도를 철회하고 장로제도를 인정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다(Paul 1985:37-40).

개혁교회는 승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영국의회를 통하여 완전한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양국을 통치하고 있는 찰스 1세에게 의회소집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왕은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1640년 11월, 영국의회는 소집되었고 그들은 개혁교회가 요구해 온 역사적 4대 과업을 성취하는 중요한 출발을 승인하였다(Hetherington 1841:81). 이 의회를 통하여 교회를 좌지우지하던 왕실의 권위는 서서히 붕괴되고 개혁교회는 장로정치의 원리와 신조, 그리고 바른 예배모범을 갖게 된다.

(2) 웨스트민스터 성 총회

1643년 6월 12일 영국의회는 성직자들의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의회는 “학식있고 경건한 성직자들과 의회가 정한 다른 사람들을 소집하고 영국교회의 정치 체제와 예전의 정착을 위하여, 거짓된 비난이나 해석으로부터 교회의 교리를 회복시키고 정화하기 위한 상,하 의원의 법령”을 선포하였다(Ibid.:97). 이 총회에 참석하게 될 인원과 토의과제, 의장과 진행의 모든 사항들은 의회가 결정했고 그 의회가 말하는 공적인 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교회정치체제를 수립하고 교회의 평화를 보존하며 스코틀랜드 교회와의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Ibid.). 역사적 첫 회의가 1643년 7월 1일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있는 헨리 7세 기념 예배당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성 총회(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이다.

회의의 구성원은 국교 성직자를 제외한 성직자 121명, 평신도 30명으로 도합 151명이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전문위원 자격으로 4명의 목사와 2명의 장로가 참석했으나 투표권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스코틀랜드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회의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따라서 회의의 주 업무는 영국 장로교인들과 독립주의자들의 손에 의해 움직였다. 이들은 장로교 퓨리탄들, 독립주의자들(Separatists) 그리고 에라스티언(Erastian)들로 나뉜다(Heron 1996:219). 회의는 1644년 첫 번 모임에 69명이 참석함으로 시작 되었다(Hetherington 1841:114).

성 총회는 1643년 7월 1일에 개회하여 1649년 2월 22일까지 5년 6개월에 걸쳐 1163회의 회의를 가졌다(오덕교 1997:164). 첫 작업은 영국교회가 사용하던 교리서, ‘39개 조항’(Thirty Nines Articles)의 개정 작업이었으나 1643년 9월에 스코틀랜드 대표단이 도착하면서 예배모범부터 다루게 되었다. 이같은 갑작스런 변화는 지금 스코틀랜드 교회가 낙스의 예식서를 사용하지 못하고 ‘로드 예식서’나 영국의 ‘공동기도서’를 사용함으로 발생한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같은 취지는 개회식의 설교자였던 필립 나이(Philip Nye)가 밝히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목적은 예배의 정화이다. 그것은 국가가 정해준 모델에 따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대로 따르는 예배이어야 한다” (정장복 1999:178. 재인용).

예배모범은 회원들의 깊은 관심 가운데 신앙고백이나 교회정치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졌다. 새 예배서의 준비는 의장인 마샬(Stephen Marshall)과 독립교단 소속의 굿윈(Thomas Goodwin)이 주축이 된 소위원회에 맡겨졌다(Thompson 1961:349). 초안 작성자들은 적극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 “첫째는 모든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신성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세 왕국의 예배일치를 이루는 것이고, 셋째는

목사들에게 일반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Davies 1996:409)

그러나 이같은 공익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영국 청교도들의 자유로운 예배 추구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된다. 굳원은 정해진 형식을 반대했고 반면 스코틀랜드의 네 위원들은 주로 낙스의 공동예배규범과 일치 시키려고 했다(Thompson 1961:349). 이같은 대립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1644년 5월에 마침내 의장은 전체 총회 앞에 예배서의 초안을 제시한다(Ibid.). 이와 관련하여 레이쉬만(Thomas Leishman)은 예배모범(The Westminster Directory)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644년 5월 24일에 비로소 예배모범서의 초안이 총회에 의해 채택 되었다. 처음에는 빠른 진전이 있었으나 성찬식 부분의 논쟁으로 인해 지연되다가 이듬해 1월 3일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총회에서 70회 이상 토론 되었고 그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으나 애매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

연대적으로 본다면 1643년 9월부터 소위원회에서의 70회 이상의 연구, 토의 결과 예배모범의 원고는 1644년에 완성 되었고(Thompson 1961:350), 의회에서는 1645년 1월 3일 다섯 개 문서 중 제일 먼저 받아들여졌으며,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한달 뒤 총회에 의해 수용되었다(Ibid.:352). 이렇게하여 스코틀랜드교회와 영국의 청교도들은 본인들이 소망하던 예배모범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비록 이것이 완전한 것은 되지 못하였으나 후에 아일랜드, 미국 그리고 전세계 장로교회 예배의 중요한 기초와 원리가 되었다.

2) 그 내용

테일러(Evan Tyler)에 의해 1644년 영국에서 출판된 첫 번째 영문판은, 공동기도서를 폐지한다는 법령과 공동기도서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서문에서 밝히고 이어서 13개 항목으로 예배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마지막은 공예배의 날과 장소에 관해 부록을 달고 있다. 필자가 여기에 사용한 예배모범의 텍스트는 1901년 토마스 레이쉬만(Thomas Leishman)이 현대영어로 출판한 것이다. 본문 전체를 그대로 옮길 필요가 없으므로 요약, 정리하여 여기에 싣고 나름대로 평가를 할 것이다.

(1) 법령

“공동기도서는 잉글랜드, 웨일즈령의 왕국에서 이후부터 교회나 예배당 또는 공예배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예비된 모범서는 진실한 의도와 법령의 의미에 따라 이 시간후로 사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2) 서문

복된 종교개혁의 초기에 우리의 현명하고 경건한 선조들은 많은 것의 시정을 위해 한 규칙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헛되고 결점투성이며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것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경건하며 박식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기술된 공동기도서를 기뻐하였는데 이는 미사와 라틴어 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 예배를 우리 자신의 언어로 드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전엔 책이 봉인된대로 그들에게 있었던 성경을 읽는 것을 들음으로 유익을 받았다.

고위 성직자들과 저희 부류는 그 예법을 끌어올려서 우리에게는 예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이 예배 책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가치를 올리려고 애를 쓰며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크게 방해하고 있는데(심지어 최근 어떤 곳에서는), 말씀이 필요 없다 혹은 제일 좋게 표현해서, 말씀은 공동 기도 책을 읽는 것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밀어내는 경우가 생겼으니 많은 무식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현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종교 개혁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양심을 만족케 하고 다른 개혁 교회의 기대에 응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경건한 자의 소원을 만족케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엄숙한 연합과 계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예배에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증거를 보이게 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많이 의논하고 혈육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가결하였으니 이전 예배 의식을 그 여러 가지 의례와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하던 예식들과 함께 버리고, 다음 모범을 보통 때나 특별한 때에 공중 예배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한 것은 모든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은 고수하고 다른 일은 신자의 지혜의 법칙에 따라 진술하려고 노력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준한 것이다.

(3) 공중예배를 위한 회중의 모임과 그 태도

회중이 공중예배를 위하여 모임 때에 백성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해야 하며,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엄숙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초대 한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공중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목사나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행위, 즉 그 때 읽거나 암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는 행위, 사사로이 소근대는 것, 이야기 하는 것, 인사하는 것,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성경봉독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것은 공중예배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과 성화의 방편이 된다. 보통 신·구약에서 각각 한 장씩 모임 때마다 읽는 것이 좋으며, 정경에 있는 모든 책을 순서대로 읽어서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더 잘 알게 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성경을 공중 앞에서 읽어주는 것 외에 읽을 줄 아는 사람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라고 권면해야 하고, 또한 성경을 소유하라고 권해야 한다.

(5) 설교 전의 공중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읽은 후(그리고 시편송 후) 설교를 할 목사는 자기의 마음과 듣는 이의 마음이 지은 죄를 바로 깨달아 저희가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죄를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구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한다.

첫째, 원죄를 인하여 한다.

둘째, 실제로 짓는 죄를 위하여 한다. 우리가 지은 죄, 관리들이 지은 죄, 목사의 죄, 전 국민의 죄, 또한 우리 마음의 눈먼 것과 마음이 굳은 것, 불신과 뉘우치지 않음, 육신의 안일과 미지근한 것과 메마른 것 등

셋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여야 마땅한 우리의 죄인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심에 대하여 한다.

넷째, 주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인치사 용서와 화해, 위로를 허락하시고,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다섯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니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를 것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교회를 구하여 주시고 개혁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한다.

여섯째, 왕을 비롯한 모든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기근, 전염병과 전쟁을 치위 달라고 기도한다.

일곱째,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주일을 복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을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한 정도에 이르게 하시도록 기도한다.

여덟째, 주의 종에게 지혜와 믿음과 열심과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한다.

목사의 판단에 따라, 이 기도의 어느 부분은 설교 후로 돌리거나, 다음에 정해 놓은 감사예물을 설교 전에 드려도 된다.

(6) 말씀 선포에 대하여

말씀 선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 사역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부분이므로, 설교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과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의 원어들과 문학과 과학,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 성도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얻게 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더욱 확실한 조명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해야 하며, 설교자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뒤에 회중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보통 설교 주제는 신앙의 원칙이나 어떤 항목을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어야 하고, 아니면 그 때 처한 특별한 경우에 맞는 것이거나, 혹은 적당한 시편이나 성경을 몇 장씩 계속해 설교할 수도 있다.

설교의 서론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 본문과 연관하여 쉽게 정황을 전달한다. 본문에서 교리를 도출해 내는 경우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일 것과 둘째, 그 진리가 포함되어 있거나 본문에 근거한 것이 되도록 하여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해야 하며, 셋째, 설교의 내용이 회중들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별히 교리는 평범한 용어로 설명하고, 그 결론을 명백하게 해야 할 것이며, 논조나 이론은 견고하여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본문에 있다고 모든 교훈을 반드시 다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중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의 직분을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

첫째, 주의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

둘째,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셋째, 충성되이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넷째, 모든 가르침과 권면, 특히 책망하는 설교는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태도로 엄숙하고도 진지하게 선포해야 한다.

여섯째, 회중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

일곱째,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대로,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믿는대로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그의 양떼들 앞서 걸으면서 저희의 분이 되어야 한다.

한 교회에 여러 목사가 있고, 저희의 은사가 각기 다른 경우, 각인이 가르치는 일이나, 권면하는 일이나, 자기의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한 가지에 전념할 것이다.

(7) 설교 후 기도에 대하여

설교가 끝나면 설교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위하여,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회중들의 마음에 심기어져 열매 맺기를 위하여 간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게 하심을 위하여 기도한 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린다.

그리고 성찬 집례시나 특별한 절기나 행사 때에는 설교 전이나 후에 특별한 간구와 기도를 하여야 한다. 기도가 끝나면 회중과 함께 시편송을 부른 후, 설교자는 엄숙하게 축도하고 예배를 끝맺는다.

(8) 성례의 집행에 대하여

세례

세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지체치 말고 공 예배 시 회중 앞에서 행해야 한다. 유아세례의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나올 것이며, 그는 세례받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진지하게 고백하여야 한다. 세례 전에 목사는 제정의 말씀을 주고 이 성례의 성격과 용도와 목적에 관하여 예배모범에 기록된 대로 설명한다. 또한 설교자는 출석한 모든 회중에게 세례 받은 때를 돌아보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개선하고 바르게 할 것을 교훈하고, 부모들에게는 세례 받은 아이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도록 한 후, 이 영적 필요를 위하여 물을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그리고 수세자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부으면서 “내가 ○○○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고 말한다. 이렇게 한 후 이어서 예배모범에 기록된 내용으로 감사를 드린다.

성만찬

성만찬은 자주 거행하는 것이 좋으나 그 횟수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편리한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거행시기는 주일 오전예배 설교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고, 성찬식 거행 일주일 전에 공적으로 미리 알림으로 참여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성찬식을 시작할 때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하고 예배모범에 따라 간단한 권고를 하는데, 이 성례를 통하여 받게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에 대해 감사드리고 합당치 않게 성찬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설명한다. 또한 회중들이 먼저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의 만찬에 참여 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권고와 초대할 한 후에 수찬자들로 하여금 질서있게 둘러앉거나 둘러서도록 자리를 정돈하게 하고, 떡과 포도주에 대한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복음서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간단히 설명하고 적용해 주어도 좋다. 이렇게 행한 후, 떡과 포도주를 나눈다. 목사는 수찬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잔을 들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선언한다. 분잔을 마친 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해 권고하고, 이어서 엄숙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감사의 응답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한 연보를 할 수 있다.

(9) 거룩한 주님의 날에 대하여

주님의 날은 미리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루종일 주의 날로 거룩히 지키되, 모든 불필요한 노동을 그치고 모든 오락과 유흥을 금할 뿐 아니라, 세상 말과 세상 생각까지 금하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각 사람과 가족마다 개인적인 준비를 하되, 저희를 위한 기도와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모든 사람은 시간에 맞춰 공 예배에 참석하고, 축도를 마칠 때까지는 먼저 나가지

말아야 한다. 예배드리기 전·후의 빈 시간은 설교를 읽거나 묵상하고, 기도와 찬송, 병자심방,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

(10) 결혼 예식에 대하여

결혼은 비록 성례도 아니고,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자는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 교육과 지도와 권고를 받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야 하며, 목사에게 주례를 받고, 말씀과 기도와 축복이 주어지는 엄숙한 의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결혼식이 있기 3주 전에 목사는 회중들에게 저들의 결혼을 공고하여야 하고, 결혼을 발표하기 전 부모나 혹은 보호자가 승인한 것을 교회 제직들에게 통지할 것이며, 교회는 그것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억지로 결혼하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 허락하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결혼이 발표된 후에는 결혼식을 오래 지연하지 말아야 하며, 목사는 모든 과정이 확인되면 결혼을 위한 장소와 날과 시간을 잡아서 믿을만한 증인들의 수가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집례한다.

결혼예식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하므로 목사는 예배모범의 기도를 활용하여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간단히 성경에 근거하여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서약의 단계를 밟는다. 서약 이후에는 회중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로 식을 마친다.

(11) 병자 심방에 대하여

목사는 맡겨진 양떼들을 권고하고 권면하며 책망하고 위로해야 한다. 목사는 저희가 건강할 때는 죽음을 예비하도록 권고하고, 병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주신 때로 알아, 사랑을 가지고 병자의 심령에 영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병자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심령 상태를 살피게 한다. 병자가 거리끼는 것이나 의심, 시험이 닥친 것이 있다고 하면, 지도하고 해결해 주어 만족하고 안정하게 할 것이며, 병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고 거룩한 길로 행하였으면, 또한 그의 심령이 죄악감으로 상하였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에 낙심하였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공활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주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을 보여주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그 기회를 병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 그와 화평을 누리도록 권면하는 기회로 삼아, 건강할 때 병고와 죽음과 심판을 예비하게 하고, 저희의 정한 날이 지나가는 동안 소망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게 해야 한다.

(12) 죽은 사람의 장례에 대하여

누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죽은 시체는 장례식 날 집에서 매장지까지 규율에 따라 옮겨가고 즉시 묻을 것이다. 시체 앞에 무릎을 꿇거나, 그 옆에 서서 죽은 시체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미신적인 것이고, 찬송이나 기도, 성경을 봉독하는 것도 불필요하게 남용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위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목사가 참석하였으면, 그런 경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자주 찾아 그들의 상처를 씻고 그들이 맡겨진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인도한다.

(13) 공적 금식에 대하여

백성에게 무슨 크고 주목할 만한 심판이 내렸거나 또는 내릴 것이 분명할 때, 공적 금식을 엄숙히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다. 종교적 금식은 전적인 금욕을 요구하므로, 음식뿐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일과 말과 생각과 육체적 향락

과 그와 같은 것들과 화려한 옷과 장식품과 그와 같은 것들을 금식하는 동안 제하고 더구나 중상적이고 비열한 성격이나 용도의 것은 모두 금해야 한다. 모이기 전에 각 가정과 개인은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고 모이는 시간에 일찍 가도록 한다. 그날은 될 수 있는 대로 종일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시편 찬송을 하면서 보낸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목사는 자신의 입장이 아닌 백성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목사와 백성이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녹아지되 특별히 저희 죄를 인하여 슬퍼하며 진실로 깊은 겸손과 애통함이 있게 한다.

읽을 성경 말씀을 특별히 선택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에 그 날의 목적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사람들을 겸비와 회개로 이끌게 할 것이며 회중의 덕을 세우고 바로 고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강조한다. 금식을 마치기 전에 목사는 자기와 저희 마음을 주님께로 결합하게 하여 저희 가운데 잘못된 것은 무엇이나 고칠 목적과 결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전보다 더욱 새로운 순종으로 성실하게 행할 것을 결심하도록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의 한 일을 흠향하사, 저희를 향하여 마음을 푸시고 은혜로 응답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심판을 제거하시며 염병을 거두시고 방지하시며, 심판을 제거하시고 그 백성의 상태와 기도에 맞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것을 간구한다.

상부의 권세로 명령한 엄숙하고 일반적인 금식 외에도 다른 때 교회들은 금식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키고 각 가정들도 그와 같이 하되 저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금식을 하거나 다른 공 예배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은 피한다.

(14) 공적 감사일에 대하여

어떤 날을 감사일로 지키려면, 먼저 그것을 공포하여 사람들이 잘 예배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날의 모임을 위해 목사는 적절한 권고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임에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한다. 그 다음에 그는 간결하게 구원받은 이야기와 받은 공훈, 혹은 회중이 모이게 된 동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고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시편을 부르되, 성경봉독 전후에 한다. 그 후에 목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권면과 기도를 하고 그 후에 그 때에 맞는 성경 본문으로 설교한다.

설교가 끝나면, 목사는 교회와 왕과 국가에 필요한 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에 받은 공훈과 구원을 감사하고, 그 후에 공훈에 맞는 다른 시편을 노래한 후 모임을 마친다. 회중이 다시 모일 때 같은 식으로 기도, 성경 읽기, 설교, 시편 찬송, 또한 찬송과 감사를 아침에 인도한 대로 다시 새롭게 하여 계속하기를 떠날 때까지 한다. 그 날에 드러진 예물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

(15) 시편 찬송에 대하여

하나님을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시편을 찬송함에 있어서 목소리는 곡조에 맞게 내며, 그 내용을 이해하고 마음에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노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 회중이 다 함께 불러야하므로 읽을 수 있는 자는 모두 시편 책을 가질 것이요,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목사나 또는 다른 당회원이 임명한 선창자가 시편을 한줄 한줄 노래하기 전에 읽어주도록 한다.

(16) 부록

공 예배의 날과 장소에 대하여 복음시대에는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날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럴 이유와 기회가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에 하루나 여러 날을 금식이나 감

사 날로 구별한 것은 필요하다.

어느 장소도 아무리 헌당이라 구별을 할지라도 기록할 능력이 없고 또한 전에 미신적으로 썼어도 이제 구별하여 쓰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 되거나 불편하게 되도록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배처로 정하여 쓰던 장소는 그 용도를 위하여 계속 쓰이 마땅하다.

3. 평가

이 모범서를 읽으면서 생각되는 긍정적, 부정적 평가를 각각 몇가지로 나누어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인 면에서 첫째, 이 예배모범서는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배를 구사하려고 했다.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비롯되지 실용주의에 근거하여 있지 않다. 둘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가르치고 있다.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성부, 중보자로서의 성자, 원동력으로서의 성령을 잘 말하고 있다. 셋째는, 의식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설교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다. 단 몇 구절의 성구가 아니라 한 장의 본문을 읽도록 하여, 그 말씀을 강해하였던 면들은 오늘날에도 좋은 교훈을 준다. 넷째는, 예전적인 기도를 배격하고 자유기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찬양, 감사, 고백, 중보, 간구의 내용을 담았다. 다섯째,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여 미신적이거나 터부시하는 경향을 방지했다. 마지막으로 주일성수를 강조했다. 그날에 해야 할 성도들의 행동 지침까지 규정해서 지키게 한 것은 현대까지 미치는 훌륭한 결단이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비판적 평가도 있다. 먼저는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입장 차이로 인하여 과거 기독교 예배와의 역사성 단절이 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켜져 오던 1500여년의 예배와 예전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못한채 작성 됨으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예배예전의 내용을 이해, 수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둘째는, 말씀의 순서를 강조하다보니까 자연히 성찬 부분이 약하여짐으로 예배의 2부 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질타를 받는다. 셋째는, 예배음악에 있어서 악기 사용을 금한 것은 실수이다. 넷째는, 상징물이 과다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들까지 부정한 것은 현대의 예배당을 단순한 집회 장소로만 이해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섯째는, 평신도의 예배 참여가 적고 목사만이 주관하는 예배가 되었다. 여섯째, 찬송을 시편송만으로 제한한 것은 지역과 나라와 민족들의 문화적인 것을 고려치 못한 결정이다. 마지막으로 장례와 결혼예식에 관한 비판적인 시각을 지적할 수 있다.

-끝-